

科學技術 移殖으로 所得 倍加

韓牛 園藝재배, 養豚 소라증식 등

—濟州道 새마을 技術奉仕團編—

- ……새마을기술봉사단 濟州道團은 을 1~3월중에 1科學者 1 마을技術結緣계획에 따라 邑·面……○
- ……단위로 17개 마을에 대한 과학 기술결연을 끝냄으로서 영농의 과학화와 능가소득증대에……○
- ……새로운 章을 마련했다. ……○
- ……제주도 농어촌의 가구당 평균소득은 대부분 1백만원을 상회하고 自立마을의 경우는……○
- ……1백90여만원을 넘는 전국최상위의 고소득마을도 많이 있다. 그러나 소득의 高低를 막……○
- ……론하고 영농방식은 고질적인 과거의 경험만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영농의 과학화가 시……○
- ……급한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스스로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경영방식의 오류와 술……○
- ……한 기술상의 난문제들을 발견하고도 이를 合理的으로 해결하려들기 보다는 不可抗力으……○
- ……로 돌려버리거나 체념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다. 제주도단은 이같은 문제점을 보……○
- ……다 신속히 해결하고 과학기술이식의 중요성 및 새마을기술봉사단의 신뢰도를 제고시키……○
- ……기 위해 마을의 요청에 反應하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를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으……○
- ……로 봉사단을 활성화시키는데 전력을 경주하고 있다. 기술결연시에는 단장, 부단장, 결……○
- ……연교수와 행정요원, 지방유지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결연식을 갖는 한편 기술강연……○
- ……및 홍보영화(새마을과 과학기술, 히말라야의 도전등)를 상영, 새마을기술봉사단의 활……○
- ……등분야 소개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시켰다. 「그들(農漁民)속에 우리(奉仕團)」가……○
- ……되기 위해 봉사단원들은 결연마을나 새마을현지를 직접 찾아가 기술에로사함을 해결하……○
- ……는데 헌신 노력한 결과 부락민들과의 유대강화는 물론 소득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양했……○
- ……다. 많은 지도사례중에서 특히 성과가 있었던 몇가지 사례를 골라 게재해 보기로 한다.……○

—— 혈값에 팔리던 患牛 치료후 生氣 되찾아 ——
 —— 참의 幼苗期의 虫害, 退治로 生産性 높여 ——

◇北濟州郡 滙月面 水産里의 경우

결연지도교수 金 承 浩
 지도교수 權 五 均

이 마을은 濟州西南方에 위치한 마을로 286가구에 170ha의 農耕地를 보유하고 있는 中山間部 落.

農畜業을 위주로는 自助마을이지만 약 30ha

에 특산물인 참외를 재배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마을이기도 하다.

지난 3월하순 결연자인 金承浩교수가 이 마을을 방문했을때 부락민 이영창씨가 사육하는 한

절다 싫이한 대규모 재배인 경우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이다.

權교수는 곧 오이잎벌레幼虫의 방제에 착수했다.

幼苗期の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해 보온을 겸하여 비닐로 덮어주어 成虫이 날아오는 것을 막게 했다.

양지바른 돌담 및 잡초더미 같은 것을 태워버리는 物理的인 방법을 지도하는 한편 化學的인 방법으로는 6월중하순이 幼虫발정 최성기이므로

6월하순과 7월상순에 「이피엔」등 유기인제를 1,000배로 희석하여 토양에 灌注하도록하고, 「헨타크로프」 「지오릭스」를 토양처리하도록 기술지도 했다.

부라지도자의 오진과 마을주민들의 안이한 영농방식으로 단순한 線虫(Nematoda)으로 처리,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던 것이 새로운 병원의 규명과 함께 적절한 치료방법의 도입으로 많은 소득을 올리는 한편 과학영농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 것이다.

——斃死直前に 이른 妊娠豚 回生, 정확한 診斷으로 完治시켜 ——

이 農場은 지난 75년도에 472두의 돼지가 병발 폐사직전에 이른 것을 다각적인 技術指導로 完治하여 성공한 곳이다.

그런데 4월초순경 이 농장관리인이 제주새마을기술봉사단을 찾아와 豚코레라가 발생하여 돼지 20여두가 폐사직전에 있으니 가능한한 빠른 처방을 세워 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도 봉사단은 즉시 결연교수인 韓成郁박사와 傳染病관계 전문가인 金五南교수를 현지에 급파했다.

농장측의 진단대로 코레라에 감염되었다면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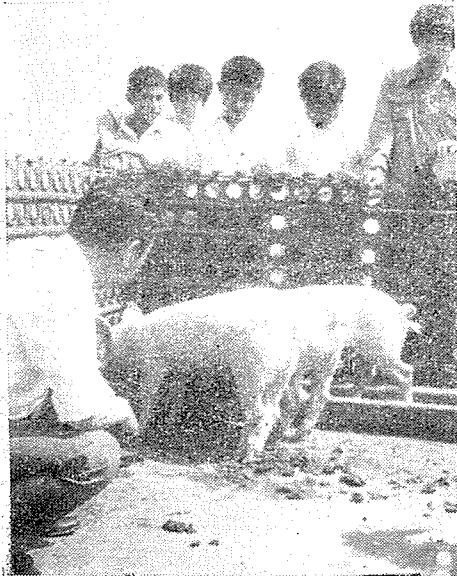


사진.. 한성욱 박사가 전염병에 찌들린 治療하고 있다. (그제주군 증문면 회수리) 病豚을

◇南濟州郡 中文面 回水里 大榮農場

는 이미 늦어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없는 것이기에 무척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하여 보니 成豚3頭는 이미 斃死되어 있고 20여두가 感染되어 앓고 있었다.

우선 확실한 진단을 위하여 폐사돈을 해부하여 病原菌鏡檢査결과 이 병은 코레라가 아니라 돼지 살모넬라병(Salmonellae)으로 판명되었다. 감염된 25두의 妊娠豚을 격리시키고 치료를 시작했다.

살모넬라病은 살모넬라菌이나 또는 돼지콜레라菌이 원인이 되어 여름철 어린돼지에 흔히 발생하는 것이 상례인데 이 농장의 경우는 특이하게도 임신돈에만 발병한 것이다.

살모넬라菌은 오염된 사료나 물등에 의하여 經口감염이 되므로 병돈에 주던 사료를 청결히 하는 방법이 선결조건으로 이에 대한 지도를 실시 했다.

또한 격리 수용된 병돈 25두에 대하여 항생제 Tetracycline계통과 Penimycin, Hostacillin등을 투여했고 Nicotinic Acid를 두당 150mg을 經口투여 했다.

미발생돈 550두에 대한 예방대책으로는 항생제 Sulfagnanizin을 5mg/Lb(체중)의 비율로 사료에 혼합하여 급여 했다.

재발생의 예방을 위하여 위생관리, 사양관리, 쥐잡기, 사람의 외부출입제한, 消毒槽설치등을

기술지도 했다.

이같은 지도결과 25두의 병든은 완전치료효과를 보아 정상적인 발육상태로 돌아갔고 미병든 550두의 감염예방에 성공한 것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농장측에 약 3백여만원의 경제적인 손실을 막아주었음은 물론 새마을 기술봉사단의 신뢰감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것이다.

——치패의 합리적인 증식지도로 소득높여, 海女들의 各種 疾病治療方法도 指導——

◇南濟州郡 城山面 城山里

城山里는 바다와 인접해 있는 비교적 큰 마을로 529가구에 2,500여명의 주민이 상주하고 있다.

농경지는 40여ha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 관광 또는 수산업에 의존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증대에 대한 열의는 갖고 있으면서도 주업인 수산업에 대한 영농방식이 원시적이며 전근대성을 면치 못하고 장기적인 사업계획이나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알찬 소득원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마을이었다.

이 마을에 수산분과전문위원인 李棋完교수가 기술결연을 맺기는 지난 2월하순. 李교수는 이 마을의 주소득원인 소라의 이식에 의한 增殖의 기술지도에 착수 했다.

주민들은 치패의 증식을 위해 城山 表善, 舊左 面일부지역, 蘭元일부지역에서 치패를 구입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치패의 성장에 따른 食餌 및 食餌의 습성과 그에 따른 환경을 거의가 고려하지 않고 증식을 시도하고 있었다.

일반적인 사고방식으로 치패를 이식해 방치해 두어도 충분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李교수는 소라의 주기적인 성장측정으로 수확에 대한 예견과 환경요인이 좋지 않은 곳은 다시 이식하도록 하고 치패의 성장적지로 속칭 「우룻개」라 불리는 곳을 선정하여 주었다.

또한 소라 치패의 이식시 치패를 선별하지 않고 투입하여 다량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같은 낭비를 막기 위해 선별방법, 투입시기, 투입적후의 관리 등에 대해 집중적인 기술지도를

했다.

이같은 지도결과는 치패에 대한 치사율의 격감과 빠른 성장으로 지금까지 기대하지 못했던 소득 증진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으며 마을 주민들은 과학기술의 수용이 얼마 만큼한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가를 실감하게 되었다. 李교수는 또 이 지방 해녀들의 건강문제에 대해서도 커다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 지도에 입했다.

한겨울에도 구리빛 피부로 바닷속을 누비는 해녀들이 무척 건강한것 처럼 보이지만 이들 해녀들은 대부분 頭痛, 耳, 痛疼痛, 등 潛水病(Caisson's diseases)과 무절제한 潛水服의 착용으로 皮膚性질환을 안고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頭痛을 견디기 위한 방법으로 「뇌선」을 상습적으로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뇌선」을 상습적으로 복용할 경우 中藥현상을 이르기키는 물론 인체에 저항물질인 흰피를 파괴하므로 다른 병원균에 대한 저항력이 없어져 致死지경에 이르기기도 하는 것이다.

李교수는 이같은 사실을 이 지방 海女들에게 누누리 설명하고 어떠한 痛症에도 「뇌선」복용을 못하도록 지도 했다. 그리고 감수복 착용은 되도록 겨울철에만 하고 착용전 해수를 몸에 적신 다음 착용하는 방법을 택하도록 했다. 이는 피부성질환이나 피부노쇠현상을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너무도 원시적인 작업방법과 영세성에 무거운 責務를 느끼며 영농의 과학화와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기술지도와 헌신적인 노력봉사가 절실함을 느꼈다.

(제주 새마을 사무국)